

	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(배포) 2019. 4. 25(목)
즉시 사용			
비고	* 풀기사 별도 배포		
담당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과장 윤현주, 사무관 조성래, 홍지은 (044-200-2211, 2212, 2274)	
	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	과장 양병내, 사무관 최혁기 (044-203-4320, 4322)	

이낙연 국무총리, 완주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
- 완주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및 현대차 전주공장 방문 -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5일(목) 오전,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(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로 소재)을 방문했습니다.
 - * (참석) ▲ 지역수소기업 : 현대차 전주공장장(문정훈),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장(허지행), 일진복합소재 대표(김기현), 가온셀 대표(장성용)
 - ▲ 지자체 : 전북도지사(송하진), 국회의원(안호영), 전주시장(김승수), 완주군수(박성일)
 - ▲ 정부 : 산업부 차관(정승일), 국토부 2차관(김정렬)
 - 이날 방문은, 완주군의 '수소상용차 기반구축 현황'을 점검하고, 지자체·기업인·연구기관들과 함께 '수소경제 활성화 방안'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
 - 먼저, 이 총리는 이흥기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장으로부터 완주군의 수소경제 추진현황과 실현전략에 대해 설명을 듣고,
 - 이어서 기업(현대차·한솔케미칼·일진복합소재·가온셀), 지자체(전북도지사·안호영 국회의원·전주시장·완주군수), 정부(산업부·국토부 차관)의 관계자와 '수소경제 활성화'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.
 - 특히 완주군·전주시는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'수소충전소 확충' 및 '수소 시범도시*' 선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
- * 수소기반의 주거·교통 등이 구현되는 「수소에너지 기반 시범도시」 선정(3개), '22년까지 조성 ('19.3 국토부, 2019년 업무보고 시)

- 간담회 후 이 총리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대차에서 생산한 수소전기버스를 타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(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163)으로 이동했습니다.
 - * 간담회 참석자 및 현대차 상용사업담당 한성권 사장, 김동욱 현대차그룹 정책조정팀장(전무), 장영달 우석대총장(완주군 자동차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의장) 추가 참석
 - 현대차 상용차사업담당인 한성권 사장으로 부터 현대차의 수소전기버스, 수소트럭 등의 수소상용차 생산 계획*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,
 - * 올 연말 산업부R&D 과제로 국내 수소 청소트럭시범사업을 실시, 스위스에 수소트럭 10대 수출. 유럽 친환경 상용차 시장 공략을 위해 스위스 수소 에너지기업(H2에너지社)과 협력 사업을 펼치고, '25년까지 총 1,600대 규모의 수소트럭을 공급할 계획
 - 현대차 전주공장 내 상용파일럿트동에서 수소생산품*과 수소버스를 생산하는 현장을 참관하고,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.
 - * 일진복합소재(수소연료탱크), 가온셀(수소지게차) 등
 - 정부는 수소경제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「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」('19.1), 「수소경제 표준화 로드맵」('19.4) 등을 발표하였으며,
 - * '19.3월말 기준(누적, 등록기준): 수소승용차 1,079대, 수소충전소 20개소
 - 특히, 전북 수소상용차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'미래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'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('19.1)을 한 바 있습니다.
 - *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('18~'22)내 지역활력회복 프로젝트로 추진('19.1.29) '20~'24년, 총사업비 : 1,930억원(국비1,095, 지방비461, 민자374)
 - 전북도와 완주군·전주시는 도내 상용차 생산공장, 수소 생산기업, 수소 연료탱크 기업, 연구기관 등이 소재*한 것을 기반으로 "수소상용차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"을 추진** 중에 있습니다.
 - * 현대차 전주공장(수소상용차 생산), 한솔케미칼 전주공장(수소 생산), 일진복합소재(수소차 연료탱크 제조), 가온셀(수소지게차 생산),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등
- ** 전북도,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보급계획 발표 ('18.11), 완주·전주, 「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」 용역 추진 中 ('19.3~12, 1억6천)

- 정부는 앞으로도 '수소경제 활성화'를 위해 「수소충전소 구축전략」 마련(19.5월), 「수소 기술로드맵」 수립 및 「수소경제법」 제정(19.하반기)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* 「수소경제법」 제정, 수소버스 시범사업, 수소택시 시범사업, 수소 시범도시 지정,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을 추진 예정(~'19.末)

- 한편 이 총리는 '경제활력 제고'를 위해 **경제 현장***을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,

* 인천신항(1.8), 삼성전자 수원사업장(1.10), LG생활건강 청주사업장(1.25)

- 특히, 수소차를 연구·개발하는 **현대차 남양연구소**를 방문(1.30)하고, **광화문 경찰차를 수소버스로 교체할 것을 관계부처에 검토 하도록** 지시했으며, 대외 일정을 수소차로 다니는 등 수소차 활성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.

- 오늘 전북 지역 방문도 수소연료차인 '넥쏘'를 이용해 **정부세종청사에서 완주군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**까지(약 75km) 및 **현대차 전주공장에서 광주 남부대학교**까지(약 102km) 이동했습니다.

* 총리실 업무용 차량 1대를 수소전기차량으로 교체(임차기간 '19.1.10~'23.1.9)

※ (붙임)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계획

붙임

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계획

□ 수소차

- 승용차 : ('22) 6.5만대 → ('40) 275만대 ※ 현재 1,079대('19.3 누적)
 - * 누적생산량 : ('19.3) 2.1천대 → ('22) 7.9만대 → ('40) 590만대
 - * 누적수출량 : ('19.3) 1.1천대 → ('22) 1.4만대 → ('40) 315만대
- 택 시 : ('40) 8만대 ※ 현재까지는 보급 수소택시 없음
 - * 올해, 시범사업 추진(서울, 10대) → 주요 대도시('21) → 전국 확대('23)
- 버 스 : ('22) 2천대 → ('40) 4만대 ※ 현재 2대 ('19.3 누적 : 서울1, 울산1)
 - * 올해 7개 도시 수소버스 35대 보급 → 시내버스 2,000대를 수소버스로 교체('22)
- 경찰버스 : (~'28) 820대 교체 ※ 현재 보급 경찰버스 없음
 - * 전경용 수소버스 2대 개발('19), '20년말까지 실증 → '21년부터 순차교체(연 평균 100대)
- 트 럭 : 수소트럭 개발 후 3만대 보급(~'40)
 - * 내년까지 5톤급 수소트럭 기술개발 → '21년부터 공공부문 수소트럭 시범사업 실시

□ 수소충전소

- ('22) 310개소 → ('40) 1,200개소 ※ 현재 20개소 ('19.3 누적)
 - * 올해 누적 86개 설치 목표 : 규제샌드박스로 4개 통과, 추경에 25개 반영 등
 - * 거점도시 중심('18) → 권역별 교통망 거점('19) → 권역망 확대·연결('22)로 순차적 확대
- 충전소 유형별 설치보조금 차등 지급, 운영보조금 신설 검토('20)
 - * 지원현황 : (환경부) 1개소당 설치비용의 50%(15억원 한도)
(국토부) 고속도로 1기당 7.5억원 지원
- 충전소 규제완화(입지제한, 이격거리 완화, 셀프충전 허용 등) 지속 추진
 - *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도심지, 국회, 정부청사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추진
 - * 既 완료 : 용복합충전소 및 이동형 충전소 설치 허용,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기 마련,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